



8 창고천 학술탐사

김광종 영세불망비와 임판주 마애석각

백종진
제주문화원



I. 김광종 영세불망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로 87번길 맞은편 시멘트포장 소로 입구에서 약 30m 지점 창고천 변 속칭 도채비빌레에 세워져 있다.

사진 1. 1938년에 세워진 김광종 영세불망비

1. 화순리 수로 개척의 주인공, 김광종

김광종은 현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 출신으로, 조선시대 1832년(순조 32)에서 1841년(헌종 7)에 이르는 만 10년 동안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안덕계곡 창고천의 물을 끌어 논밭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다. 이를 위해 인부들을 고용하여 보(堡)를 쌓고 계곡 벼랑의 허리 암반을 쪼아내어 산을 깎아내는 대대적인 토목공사 수행, 총연장 670m의 수로를 만들어 현 남제주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일대를 포함하는 5만 여평의 땅을 논으로 개척하였다.

2. 비의 건립

김광종 영세불망비는 1938년 5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답회(和順沓會)와 김광종의 증손인 용선(龍仙), 양순(良順), 세운(世潤)과 현손 두병(斗柄)이 김광종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다. 제주산 조면암으로 제작된 비신(碑身)의 높이는 72cm, 너비는 39cm~44cm, 두께는 16cm~16.5cm이다.

3. 비문

김광종 영세불망비는 지혁중(池赫重)이 짓고 강사종(姜師宗)이 글씨를 썼다. 원문은 세로로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원문의 ()안의 글자는 파손되어 있어 추측하여 써 넣었다.

| 전 면 |

중양 : (金)海金光宗永世不忘碑

우측 : 穿山引水/漢西開始//多費己財/以裕後世

좌측 : 食我香稻/賴公德基//功擬召父/歲祈田祖

| 풀 이 |

중양 : (김)해 김광종 영세불망비

우측 : 산을 뚫고 물을 끌어, 한서(漢西;한라산 서쪽) 지방에 논을 개척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오직 자신의 재산을 바쳐, 후세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였다.

좌측 : 이제 우리도 향그러운 쌀밥을 먹고 있으니, 이게 모두 김광종 공(公)의 덕을 입은 것이다.
그 공로가 소부(召父:중국 한(漢)나라의 태수(太守) 소신신(召信臣))의 선정(善政)과 비길 만하므로, 이에 전조(田祖)로 모셔 해마다 제사 드린다.

| 후 면 |

중양 : (昭)和十三年戊寅五月五日和順沓會建設

우측 : 住楮旨里/后曾孫龍仙/良順/世閏/玄孫斗柄

좌측 : 會首 梁時權/發起 宋雲玉/誌 姜師宗/贊 池赫重

| 풀 이 |

중양 : (소)화 13년(1938) 무인 5월 5일 화순답회 건설

우측 : 저지리에 거주하는, 후손 증손 용선, 양순, 세운, 현손 두병

좌측 : 회수 양시권, 발기 송운옥, 지 강사중, 찬 지혁중

바로 인접한 둔덕에 1968년 4월 김광종의 6대손 김창진(金昌珍)과 화순리 화순답회(和順沓會) 회장이 공동으로 세운 또 다른 영세불망비인 ‘통정대부 김공영세불망비(通政大夫 金公永世不忘碑)’가 세워져 있다. 제주산 조면암으로 제작된 비신(碑身)의 높이는 92cm, 너비는 43.5cm~45cm, 두께는 17.5cm~18cm이다.

| 전 면 |

중양 : 通政大夫 金公光宗永世不忘碑

우측 : 公은 山을 뚫고 물을 끌어 짚을 게척했/
음은 漢山西에서 처음이로다 몸소 희생/
을 다하여 후세에 편케 하였음에

좌측 : 향기로운 쌀밥을 먹게 되니 公의 德을/
잊을손가 先生의 功을 칭송하여 해마/
다 奉祭하여 명복을 비는도다

| 후 면 |

1단

중양 : 西紀一九三八年五月五日和順沓會建立

우측 : 穿山引水/漢西開始//多費已財/以裕後世



사진 2 : 통정대부 김공광종 영세불망비

좌측 : 食我香稻/賴公德基//功擬召父/歲祈田祖

2단

住 楮旨里/曾孫龍仙/良河/庚白/世閭/玄孫斗柄/會首 梁時權/發起 宋雲玉/

誌 姜師宗/贊 池赫重

좌면 : 西紀一九六八年四月 日/和順沓會員一同/六代孫 昌辰//改豎

우면 : 西紀一八三二年三月 日 起工/工事延長六七〇M/西紀一八四一年九月 日 竣工

4. 현황

1938년에 세워진 비의 전면 상단에 약간의 손상이 있기는 하지만 ‘도채비빌레’에 세워진 영세불망비 두 기(基)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비문의 마모도 심하지 않아 육안으로도 관독 가능하다.

5. 의의와 평가

제주도는 본토와 달리 비가 오면 빗물이 모두 땅으로 스며들어 내[川]는 있지만 건천(乾川)이 대부분이다. 토지 또한 척박한 화산토로 되어 있어 습기를 오래 머금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논농사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천수답에 의존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김광중은 논밭이 드문 제주에서 안덕계곡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하여 수로를 만들고 화순리 일대를 광활한 논밭으로 개척한 농업의 선구자라 하겠다. 김광중 영세불망비를 통해 자연의 고난을 극복하던 제주선인의 지혜와 끈질긴 인내와 생활력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김광중이 개척한 수로는 대정군수를 지냈던 채구석(蔡龜錫, 1850~1920)이 1906년(광무 10)에서 1908년(융희 2)에 걸쳐 천제연에 관개수로(灌溉水路)를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1895년(고종 32) 1월에서 1898년(광무 2) 3월, 1899년(광무 3) 7월에서 1901년(광무 5)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대정군수를 역임하면서 채구석은 화순리의 관개시설을 직접 답사하여 수로의 실태를 파악해 두었을 것이라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채구석은 천제연의 풍부한 수량과 성천봉(星川峰) 아래의 광활한 토지를 보면서 그가 관할했던 대정군 관내 화순리의 논밭을 떠올렸을 것이다. 채구석이 천제연 수로 토목공사를 시행하기 이미 60여 년 전에 저지리 출신의 김광중이 안덕계곡의 냇물을 막아 제방을 만들고 산허리의 바위를 깎아 수로를 만들어, 그 물을 끌어들여 화순리 5만여 평의

들녘을 논밭으로 일구어낸 선구적인 사례가 있었기에 신축민란이 평정된 후 민란을 진압하지 못한 죄로 파면되고 서울로 압송되어 사형 직전까지 처해졌던 채구석이 구사일생으로 제주로 돌아와서는 고향인 한림리로 돌아가지 않고 중문리에서 남은 생을 기약했던 것이다.

6. 화순리 수로 답사 기행문

화순리 마을 서쪽 끝, 일주도로에서 화력발전소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약 3백m 정도를 내려가다 좌측으로 처음 보이는 좁은 시멘트 농로가 수로를 찾아가는 길이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초입엔 덤불이 무성하고, 그 사이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소리가 대부분 건천인 여느 곳의 ‘내창’과는 사뭇 다른 풍경임을 암시한다.

덤불숲 사이 좁은 길을 타고 잠깐 몇 구비를 돌면 위태롭게 움푹 패인 구덩이가 나타난다. 그 옆 둔덕에 순한문과 국한문으로 새겨진 김광종의 영세불망비 2기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서있다. 수로를 만든 주인공 김광종의 공을 기려 세운 비이다.

불망비 아래로 물소리를 더듬어 따라 내려가니 시멘트로 만든 수로가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계곡 위쪽으로 뻗어 있었다.

‘1800년대 중반에 시멘트라?’

바위 위에 깊게 패인 홈으로 길게 난 수로를 연상했었는데 시멘트 수로는 의외였다. 답사 후 한학자 오문복 선생으로부터 1980년대 선생 답사 당시 이곳 촌로의 증언을 통해 지금의 수로가 일제강점기 때 원래의 수로를 시멘트로 개수(改修)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의 수로는 변변한 연장도 없이 바위산의 ‘옆구리’를 쫓아 가면서 만든 수로였다고 한다.

“소주를 독하게 만들어 바위에 붓고 불을 붙이면 돌이 약해져서 일하기가 좀 쉽지. 당시 그 노인이 길 건너편 밭을 가리키며 ‘술막(소주를 만들었던 임시 거처)이 있던 밭’이라고 하더라.” 오문복 선생이 덧붙여 전해주었던 말이다.



사진 3. 버랑을 쫓아 만든 화순리 수로

맑은 물을 그득 채운 수로는 산굽이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물길을 거슬러 오르다 한 곳에 멈춰 수로를 측정해보았다. 폭은 약 72cm, 깊이는 약 55cm. 비문에는 이러한 수로의 연장이 총 670m임을 밝혀놓고 있다.

대단한 역사(役事)였다. 1832년(순조 32) 3월에 착공하여 1841년(헌종 7) 9월에 완공하였다 하니, 그 열정과 집념이 보통사람으로서는 감히 흉내도 못 낼 일이다.

7. 수로에 얹힌 이야기

다시 불망비가 세워진 곳에서 수로를 따라 천천히 20분 정도를 걸었을까, 물을 막아 가둔 보(壩)가 보인다. 속칭 ‘보막은소’라 불리는 이곳이 수로의 시작점이다. 독의 길이를 재어보았다. 길이는 약 40m, 높이는 약 2m.



사진 4. 보 전경

“그 보는 왜정시대 때 원래의 것을 시멘트로 고쳐 만든 것이고, 처음에는 맹탱이(가마니)에 흙을 담아다 만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큰 비가 와서 맹탱이가 물에 쓸려가자 그 어른(김광중)이 “아이고, 나 민영(무명) 300동이가 물에 실려 가부림져” 했다는 말을 화순리의

지(池)씨 노인에게 들었지.” 오문복 선생이 들려 준 말이다.

처음의 보를 만들 때 일꾼의 일당을 무명으로 계산해서 치렀는데 보만을 완성하는 데 300동의 무명이 들었다는 말이다.

당시 쓸려나간 맹탱이를 대신한 보의 모습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돌과 흙과 짚으로 쌓아올린 보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어쩌면 소라 껍데기 등을 이용한 석회로 마감되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재력 있는 분네들의 장사(葬事)에 ‘회다림’을 통해 관에 석회칠을 한 것처럼. 아무튼 지금의 보는 일제강점기에 시멘트가 들어오면서 바뀐 것이다. 수로 또한 한쪽 벽이 어른이 밟고 서있을 수 있을 정도의 두꺼운 시멘트벽으로 고쳐 만들어 진 것도 이때의 일이다.

그래도 수로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은 없을까? 김광종이 처음 물길을 만들었을 때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있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8. 170여 년 전 그대로, 수로 역사(役事)의 비밀

불망비 바로 아래, 언뜻 보면 위의 언덕에서 흙이 무너져 수로를 덮어버린 것 같은 그곳. 답사꾼들이 가서도 쉬이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170여 년 전 그때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로 역사(役事)의 비밀이 그 아래 숨어있었다.

불망비가 세워진 동산 계곡 쪽은 20여 미터의 벼랑에 독립된 바위들이 울퉁불퉁 솟아있어 산세가 다른 곳과는 다르다. 산세로 보자면 차라리 이곳에서 보까지가 평이해서 바위를 쪼아 흙을 내기만 하면 되는 듯 보였다. 난코스 중의 난코스, 그래서 아예 산을 뚫어버렸다! 정확히는, 비탈진 언덕 위에서부터 약 10m 아래로 산을 파낸 후 물길을 잇고 그 위에 큼직한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리고 다시 흙으로 매워 놓았다.

입이 떡 벌어진다. 바위에 물길을 내는 일이



사진 5. 산을 파내고 다시 매워 놓은 수로의 흔적

얼마나 힘들었으면 산을 통째로 파내어버릴 생각을 하게 된 걸까? 왜 하필 불망비가 수로의 출발점인 보가 아닌, 사람의 왕래가 잦은 농로가 아닌 이곳에 세워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 동산만 지나면 수로는 흙을 수평에 맞춰 파내기만 하면 되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식 공사였던 것이다.



사진 6. 불망비가 세워진 도채비빌레 벼랑



사진 7. 퍼물

화순리에는 이미 1696년경에 제주양씨 양수담(梁遂淡)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바위틈에서 흘러 나오는 샘인 퍼물[泥水]을 이용한 2천여 평의 천수답이 있었다.

“김광중은 원래 저지리 사람이다. 그 어른이 육지에 말을 진상하러 갔다가 논농사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화순에 일이 있어 왔다가 이곳을 보고 ‘논밭을 만들면 좋겠구나.’ 하고 전 재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 오문복 선생이 들려준, 김광중 수로 개척의 또 다른 이야기이다.

결국 김광중은 당시 이곳에 있던 ‘퍼물논’과 광활한 5만여 평의 들녘, 그리고 안덕계곡의 풍부한 수량을 보고 육지에서의 건문을 토대로 이곳에 수로를 개척할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II. 임관주 마애석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창천초등학교 건너편 창고천 암벽에 새겨져 있다.



사진 8. 가는 길

1. 마애석각의 주인공, 임관주

임관주(任觀周, 1732~?)는 1767년(영조 43)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영조가 지은 「유곤록(裕昆錄)」의 불합리한 서술과 수원부사의 천거 미속행에 따른 영조의 처분, 언관에 대한 영조의 태도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조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¹ 이 상소로 영조의 노여움을 사 그해 6월 대정현 창천리에 유배되었다. 하지만 유배된 지 석 달 만인 9월에 늙은 아버지가 있다하여 방면되었다.

복관 후 1775년(영조 51) 사간(司諫)으로 무과 응시생 중에서 시험관을 모욕한 자에 대해 엄한 형벌을 주고 유배를 보낼 것을 주청하였고, 1777년(정조 1) 집의(執義)로 토역(討逆), 성균관의 개방, 과장(科場)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궁방(宮房) 시장(柴場)의 혁파, 북도(北道) 흉황과 관련한 함경도관찰사 조중회(趙重晦)의 파직 등을 주청하였다. 1782년(정조 6) 시폐(時弊)를 상소하자 대사헌 김이소(金履素)의 탄핵을 받아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1784년(정조 8)에 남해현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1801년(순조 1) 복관(復官)되었다.

1 『英祖實錄』 卷109, 英祖 43年 6月 9日 辛丑條.

2. 조성 시기

창고천의 마애석각으로는 임관주의 5언 절구 제영(題詠) 1건(件)이 유일하다. 시의 내용으로 보면 1767년(영조 43) 창천리 적소(謫所)에서 해배되어 떠날 때 새긴 것으로, 임관주는 이곳을 시발(始發)로 하여 산방굴사·천제연·용연·백록담 등에 제영을 남기고 떠났다.

3. 각문(刻文)



사진 9. 임관주 마애석각

암벽에 새겨진 석각은 5언 절구 1수로 맨 앞의 글자 任인 경우 가로×세로가 11cm×7cm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任觀周

임관주

원문

始出荊門日
先尋枕下川
蒼巖三曲立
短瀑晚風邊

丁亥秋

풀이

귀양살이 하던 집을 나서는 날에
맨 먼저 베갯머리 냇가를 찾았네
푸른 바위 세 물굽이 돌아서 있고
늦가을 단풍 사이로 단풍이 흐르네

정해년(1767) 가을에

4. 현황

조선된 후 2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자연적 또는 인위적 훼손 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새김 당시의 각(刻)이 정교하지 않아 탁본 등을 통해서만 글자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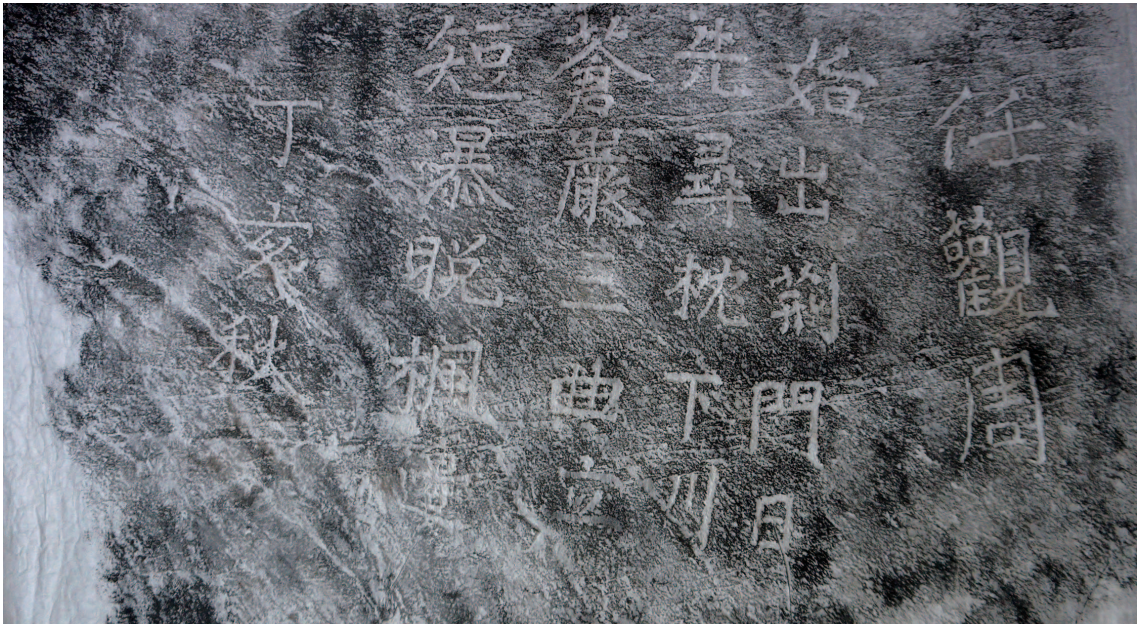


사진 10. 임관주 마애석각(탁본)

5. 의의와 평가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마애석각 중 유배왔던 이가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남긴 석각으로는 영조 때 유배되었던 정이환(鄭履煥, 유배기간:1766.4~1767.3)이 백록담에 5언 절구를 남긴 것이 최초이다.² 이후 임관주가 1767년(영조 43) 가을 해배(解配)되어 떠나기 전 적소가 있던 마을 앞 창고천을 시작으로 산방굴사, 천제연, 백록담, 용연에 각각 1수씩의 제영을 남기고 떠난다.

창고천 마애석각은 표면적으로는 해배(解配)의 기쁨에서 오는 유배객의 흥취를 제주의 자연에 각인시켜 놓은 것으로, 조선후기 제주에 유배왔다 풀려난 이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그러나 임관주가 중앙의 정계에서 요직에 있다가 제주에 유배 온 정객(政客)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창고천 임관주 마애석각은 18세기 봉당에 의해 행해지던 중앙의 정치행태를 반영하는 사료라 할 것이다.

2 백종진, 「조선후기 마애석각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13, 55쪽

6. 임관주의 다른 석각

① 산방굴사

任觀周

원 문

石作神仙窟
方山漏滴空
南天蒼海濶
吳楚一望中

풀 이

돌로 된 신선의 굴에
산방산 물방울소리 쓸쓸하고
남녘바다 광활한 중에
읏나라 楚나라가 아득하구나

丁亥秋



사진 11. 산방굴사 마애석각

② 천제연

任觀周

원 문

天地淵開大瀑流
移來棗石壁深湫
空中負箭藟人步
第一奇觀此射幘

풀 이

하늘의 연못이 열려 큰 물줄기 흐르고
굴러온 풀른 돌과 벽에 돌린 깊은 못에
공중으로 허수아비 화살 메고 걸어가는
이곳의 활쏘기가 제일 가는 광경일세

丁亥季秋



사진 12. 천제연 마애석각

③ 백록담

원문

茫〃滄海闊
一拳漢拏浮
白鹿仙人待
今登上〃頭
丁亥秋任觀周



사진 13. 백록담 마애석각

풀이

아득히 너른 푸른 바다에
주먹 같이 조그맣게 떠있는 한라산
백록이 신선을 기다리는 곳
오늘에야 정상에 올라왔다네

④ 용연

원문

任觀周

白鹿潭流水
爲淵大海潄
兩崖皆翠壁
歸客片舟尋
丁亥季秋



사진 14. 용연 마애석각

풀이

백록담 물 흘러내려
갯가에 못 이뤘으니
기슭은 푸르른 절벽
조각배 찾는 나그네

| 참고 문헌 |

- 서귀포문화원. 2009. 우리고장의 비석들(2).
- 홍순만(洪淳晩). 「비(碑)」 (28회). <제주신문 1978. 10. 12자>.